

전주시는 앞으로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 내용

전주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문제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현재 간병 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병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간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도 하루 15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간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면서 교포 출신 간병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 15만 원 × 30일 = 4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병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서는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중요한 돌봄체계로 보기보다 보호자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에는 20개가 넘는 간병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업체 등록 과정에서 품질과 운영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보호자가 선택한 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만 등록 허용

서비스 품질 평가제 도입

이용자 만족도 공개

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정기 평가를 통한 재선정

등의 방안을 통해 우수 간병업체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대형병원부터 간병업체를 평가·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제안사항

① 소득 수준에 따라 간병비 차등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 2주 이상 간병비 지원

③ 전주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간병연금보험」 제도 도입 검토

시민이 평소 소액을 적립

일정 기간 이후 간병 발생 시 사용

전주시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

④ 병원·지역기업·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간병지원기금 조성

⑤ 공동간병병동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시민 모두가 겪게

될 사회적 위험입니다.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간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간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